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제 9장 이상 국가와 영혼의 조화

◆ 1교시 이상 국가의 세 계급

▲ 각각의 덕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

소크라테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만,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은 부정의가 덕이라 하고,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덕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만 밝혀서는 그것이 바로 부정의라고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게 되면 소용이 없단 얘기에요. 예컨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서는 보통 얘기했던 것이, 덕이라는 것이 좋은 것, 나쁜 것에 대한 지혜이다, 앎이다, 이것이 바로 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리기를, 트라시마코스는 지혜가 바로 부정의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을 잘 아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의이고,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소크라테스가 덕이라는 것은 좋음과 나쁨에 대한 앎이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정의가 그런 것인지, 부정의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국가』 편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충분하고요. 덕 중에서도 정의는 뭐고, 용기는 뭐고, 절제는 뭐고, 이 각각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정의는 뭐고, 용기는 뭐고, 절제는 뭐고,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영혼의 구조가 있어야만, 영혼의 구조에서 여기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은 정의이고,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은 용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을 텐데요. 영혼의 구조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영혼의 구조가, 바로 영혼이 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 덕을 규정하기 위한 큰 틀, 이상 국가

그래서 그런 구조를 보기에 더 쉬운 것은 무엇이나. 나라에서부터 보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나라. 덕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훌륭한 것입니다. 탁월함.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고 나서 그 나라 안에서 용기는 무엇이고, 절제는 무엇이고, 혹은 정의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나라와 개인을 유비시켜서 보면 개인에게 있어서도 정의가 뭐고, 용기가 뭐고, 절제가 뭐고, 이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나라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 맥락이 145쪽이에요. 368 d 있는 데에서부터 보시면 “누군가가 그다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작은 글씨들을 먼 거리에서 읽도록 지시했을 경우에, 똑같은 글씨들이 어디 써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큰 것을 보고 나서 작은 것도 혹시 같지 않을까 하고 살피게 되면 잘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글씨로 쓰인 것을 먼저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작은 글씨로 똑같은 글씨가 만약에 있게 되면 그 글씨도 보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장입니다. 예컨대 여기 쓴 것 보이시나요? 아, 더 작게 써야 되네. 이번에는 이것도 보이시나요? 뭐 어쨌든,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인다고 얘기했을 경우예요, 이게 시력검사 같은 것을 하는 표로 생각해 보세요. 작게 쓰여 있으면 잘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처음에 이것이 안보였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보이지요, b a d 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큰 글씨로 한번 보고 나서 작은 글씨를 보게 되면, 처음에 안 보였던 것이 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같은 것 같네, 이러고선 그 다음엔 이것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처음에 보려고 하면 좀 멀리 있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뭔지 잘 못 봤다가, 똑같은 글씨가 좀 큰 것으로 쓰여 있으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왼쪽이 좀 뽀족하고, 오른쪽이 좀 뽀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그러니까 대강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것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것과 이것이 대충 형태가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큰 것을 보고 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작은 글씨가 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실제로 시력 검사판 같은 것 갖고 해보시면 이게 그냥 경험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큰 것을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작은 것을 보면 작은 것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큰 것을 먼저 보는데, 그 큰 것을 보는 것은 가장 훌륭한, 가능한 가장 훌륭한 나라를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것이고요.

▲ 이상 국가의 수립 과정과 분업

145쪽 2권의 제일 앞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4권의 중간 정도까지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나라를 수립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수업에서는 국가에 대한 부분은 좀, 그 부분도 사실은 플라톤의 『국가』를 읽는데 있어서 중요한데, 이상 국가를 수립하는 이야기 같은 것은 좀 간단하게만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일단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왜 나라가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족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성립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족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혼자 살아도 충분하겠지요. 그런데 혼자 살면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같이 살기 위한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자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각각의 성향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 이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분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집 만드는 사람은 집만 만들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옷 만드는 사람은 옷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갖고 서로 물물교환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혼자서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딱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넘어서는 욕구들을 갖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 154쪽, 155쪽 뭐 이런데, 372. 153쪽에 보시면, 372의 a, b 넘어갔는데 보시면, 빵과 포도주 먹고, 의류하고 신발도 있고요, 보리쌀에서 보리 가루를 하고, 기타 등등 식후에는 포도주 마시고, 신들도 찬송하고, 재력을 넘는 자식도 낳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죽 하고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글라우콘이 그것은 돼지들의 나라를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로 살찌우겠다고, 155쪽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글라우콘이 하는 얘기는 155쪽의 위쪽을 보시면, 침상에 기대 누워서 식탁에 차린 식사도 하고요. 요새 사람들이 먹는 것과 같은 요리와 후식도 하고, 이래서 이제 육식도 하고 그래요. 보면 처음에는 채식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만족을 안 하고 육식도 하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육식 얘기는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373a 보면, “그 밖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들로는, 그리고 이와 같은 생활방식으로는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침상이나 식탁, 그 밖의 가구도 필요하고, 유리와 향유 및 향료, 생과자, 이런 것들이 추가될 것” 이라고 했는데. 이 요리라는 말이 고기, 육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빵 같은 것만 먹다가, 밀가루, 보리 가루 이런 것으로 먹다가요. 어쨌든간에 이런 필요를 넘어서는 것들을 욕구하게 되요. 필요한 것만 욕구를 하게 되면 나라가 크지 않아도 되는데 필요를 넘어서는 욕구를 갖게 되면 나라가 더 커져야 된단 말이지요. 예컨대 육식을 하려 그러면 가축들도 잡아먹을 정도의 가축도 길러야 되고요, 가축 기를 만큼 땅도 커져야 되고, 그렇게 커지다보면 전쟁을 필요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서로 팽창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몇 사람들 모여서 서로 분업하고서 그 있는 땅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필요를 넘어서는 욕구들을 채우려 하다 보면 더 많은 영토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전쟁을 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요.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직업군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전시에만, 평소에 농사짓다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 보다 직업적인 군인이 있어서 평소에 농사를 안 짓고 군사훈련만 하는 것이 싸움을 하게 되면 더 잘 싸울 수가 있겠지요. 애초에 분업의 원리에서 집 만드는 사람은 집만 만들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생기면 전쟁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산자들이 분업을 한단 말이에요. 분업을 하니까 옷 만드는 사람, 집 만드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기타 등등 있겠지요.

▲ 수호자 계급

이정도만 가지고도 필요를 채우는 데는 충분할 수가 있었는데 필요이상의 것들을 사람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하니까 나라가 팽창되어야 하고, 팽창이 되다 보니까 전쟁을 할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사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수호자들, 지켜주는 사람들. 그런데 이 수호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어야 하나면, 적에게는 사납고 우리 편에게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상냥해야지요. 그런데 사나움하고 온순함이라는 성향을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성향이 사나운 사람은 사나운 사람이 있고, 온순한 사람은 온순한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니까,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적에게는 사납지만 자기편에게 있어서 온순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플라톤이 이상 국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상 국가를 세운 데에 있어서 가만히 논의를 읽어 보시면, 2권 뒷부분부터 3권 끝날 때까지 계속 교육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2권 중간부터 4권 중간까지가 이

상 국가 세우는 이야기인데, 이상 국가를 세운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거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것이고요.

▲ 수호 통치자 계급

그 다음에 한 3권의 뒷부분쯤에 가게 되면, 수호자들 중에서 수호 통치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호 통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보다도 나라를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243쪽부터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의 이야기지요. 412쯤에 와서요. 244쪽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중간에 보시면요. e라고 된 곳 바로 위에서부터 보시면 “수호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해 내야만 할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나라에 유익한 것이면 온 열의를 다해서 하려 들되 그렇지 못한 것이면 어떻게든 하려들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온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 이고요. 조금 위에 보시면, “자기에게도 동일한 것들이 이익이 된다고 믿게 되는 경우의 것,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되지만 그것이 잘못 되면 자기도 잘못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수호통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나라에 좋은 것이 자기한테도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현실적인 통치자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트라시마코스가 1권에서 이야기할 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통치자들이 피통치자들을, 오늘날 말로써 하자면, 수탈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사실은 피통치자에게서 좋은 것들을 다 뺏아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2권, 3권, 4권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해보면 그런 좋은 나라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통치자들은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잇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통치자가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겠느냐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생산자들은 각자 생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전사들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자기편에 대해서는 온순하지만 적에 대해서는 아주 사나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통치자들은 나라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이런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런 나라는 어떠냐. 이 나라를 가만히 보면, 지혜롭기도 하고, 용기 있기도 하고, 절제 있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다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4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73쪽에서부터 273쪽 끝에 보시면 “이 나라가 과연 올바르게 수립되었다면, 이것은 완벽하게 훌륭한 나라일 것이다.” 지금 그래서 실현 가능성, 이 문제들은 완전히 별개로 놓고요. 실행 가능성의 문제는 『국가』 5권부터 7권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지금 일단 2권부

터 4권을 이야기 할 때는 소위 이상 국가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는 논의로 놓고 나서 진짜 훌륭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던 말이에요.

▲ 통치자의 지혜와 분별력

그래서 아주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던 말이에요. 그 훌륭한 나라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그 나라는 지혜로운 나라다. 274쪽에 끝 부분에 나와요. 428 b예요. 274쪽 끝에 보시면, “이 나라가 정말로 지혜로운 나라인 것은 이 나라가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분별이라는 말이 바로 euboulia 라는 말입니다. 아까 트라시마코스가 부정의가 훌륭한 판단이다, euboulia 라고 했었는데, 그것하고 같은 말을 쓰고 있고요. 어쨌든 이 나라가 훌륭한 나라라면, 판단 같은 것을 잘, 훌륭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나라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 분별 있는 나라인 것은 왜 그런가, 목수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가 분별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분별, 혹은 잘 판단함. 통치자가 이런저런 국가의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잘 판단을 내려야지만 그 나라가 이런저런 나라로서의 행동들을 할 때 지혜로운 행동들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혜는 바로 통치자의 분별력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 수호자의 용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용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용기는 수호 전사가 두려워 할 것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경우, 그것이 용기라고 이야기해요. 276쪽부터 277쪽으로 넘어가서 용기를 이야기 하는데요. 277쪽 중간을 보시면, “한 나라가 용기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어떤 한 부류”, 이것은 전사 계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류에 의해서인데, 이 부류가 두려워할 것들에 대한 소신, 혹은 판단, 혹은 믿음을 언제나 보전케 해 주는 그런 능력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전사들이 뭘 두려워해야 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들을, 그 판단들은 기본적으로는 통치자 계급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들을 잘 지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죽음을 두려워해서 전쟁 났을 때 도망가면 안 되겠지요. 이 나라에 지킬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내 목숨보다도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이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것이 진짜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두려워 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잘 유지해야 싸움을 잘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계급들이 그런 것을 잘 해줘야 그 나라 전체가 용기 있는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용기 있다, 용기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할 때는, 그 나라에서 싸움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2교시 이상 국가와 정의

▲ 절제와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제는, 280쪽 정도부터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80쪽의 끝에 보시면 “절제라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질서요, 어떤 쾌락과 욕망의 억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절제를 이야기 한다”는데,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부분 중에서 한결 나은 부분이 좀 못한 부분을 제압한 경우 자기 자신을 이긴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280쪽과 281쪽에 걸쳐서 이야기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해서는 통치하는 계급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그것 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계급의 사람들이 좀 덜 나은, 좀 못한 계급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절제다. 그런데 단순히 지배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강함을 통한 지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절제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누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통치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피 통치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성원들이 같은 믿음, 판단을 내리고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절제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283쪽에 나와요. 282쪽, 282쪽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서, 좀 못한 사람들이, 282쪽에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미천한 사람들이 조금 못한 욕구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욕구들이 소수의 보다 공정한 사람들의 욕구와 슬기에 의해서 제압되고 있다.” 는 것이 282쪽에 431d 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나오구요. 그런데 283쪽 넘어가서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 간에 같은 판단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절제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정의는 도대체 뭐냐, 마지막으로 정의를 이야기 할 때는, 정의는 그래서, 285쪽 433a 의 끝에 보시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제 일을 하고 참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름, 정의라고 하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우리도 몇 번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 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를 한번 만들었더니 그 나라가 작동하는 것을 보라,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의 생산자들은 생산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사들은 나라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통치자들은 자기 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체 이득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훌륭한 판단들을 내려주고 있고, 각자가 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각자가 제 일을 한다는 것이 보통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도 각자 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나라가 그런 부분, 각 계급의 성원들이 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정의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 국가와 영혼의 대응관계

그 다음에 같은 얘기를 영혼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욕구적인 부분에 대응하고요. 이게 기개적인 부분에 대응하고, 이게 이성적인 부분에 대응을 해서, 각각의 경우에, 나라의 경우가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도 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305쪽 정도부터 나와요. 432 c 있는 데 보면 “개개인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부분, 격정적인 부분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이성이 지시하여 준 것을 고통과 쾌락을 통해서도 끝끝내 보존하게 되는 것.” 아까 전사 계급이 두려워 할 것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 용기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사계급에 해당되는 기개적인, 영혼에 있어서 기개적인 부분이 무엇을 두려워 할 것이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바로 그 밑에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부분, 각자 안에서 지배를 하며 이것들을 지시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인데, 이 부분은 세 부분 각각을 위해서 뿐 아니라, 셋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유익한 지식을 그 자신 속에 가지고 있다.” 작은 부분이란 것이 이성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영혼의 각 부분에 좋은 것하고 전체에 좋은 것, 각각에 좋은 것, 전체에 좋은 것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지식을, 앎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지혜롭다,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절제의 경우에는 바로 이어지는 얘가지요, 306쪽에. “세 부분의 우의와 화합에 의해서 지배하는 쪽과 지배 받는 쪽이, 의견의 일치가 있고 반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이 지배해야 되고, 기개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이 그 이성적인 부분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는, 307쪽에 443b 와서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부분들 각각이 지배 및 피지배와 관련해서 저마다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아까 이것이 지혜였고, 이것이 용기였지요. 그 다음에 절제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다스림을 받을지에 대해서 합의된 상태라 하겠고, 정의는 각자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이 다스리고 어느 부분이 다스림을 받을지에 대해서 합의된 상태,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겠고, 정의는 영혼의 각 부분이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정도 이야기가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 일상적인 정의 개념과 소크라테스의 정의 개념

문제는 지금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나서, 뭔가 좀 분명치 않은 점, 혹은 약간 속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정의가 지금 이것에 따르면 각자가 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의하고 과연 같은 것이냐,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는 『국가』 1권에서 나왔듯이 거짓말 하지

않고, 값을 것 잘 값고, 도둑질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보통 정의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것과 영혼의 각 부분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사실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별로 없어가지고, 영혼이 제 할 일 잘 하면서 부정의한 행동하는 것이 왜 불가능 하나, 특히나 트라시마코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까 트라시마코스가 부정의한 것이 용기 있고, 지혜로운 것하고 같이 간다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 트라시마코스가 상정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 하는 부정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이 자기한테 좋은 것이 뭔지 판단을 잘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분의 무엇에 대해서 뭐가, 부정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예컨대 재 것을 잘 뺏어가지고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한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리고요. 그 판단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도 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돈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진짜 두려워 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서 기개적인 부분이 그런 판단을 잘 지켜서 감행해 내고요, 부정의한 행동을. 그 다음에 욕구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이 다 이성적인 부분이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부정의한 행동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는 부정의한 사람도, 이영혼의 각 부분이 각자 제 할 일 잘 하면서 조화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 하자면,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의 정의라는 것하고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라는 것하고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플라톤은 지금 영혼의 각 부분이 제 할 일만 잘 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각 부분이 제 할 일을 잘 한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부정의한 행동이란 것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의문을 과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플라톤 『국가』 편에 대한 유명한 문제 제기입니다. David Sachs라는 사람이 처음 제기한 문제인데요. 플라톤이 실제로는 정의가 이득이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트라시마코스나 글라우콘이 제기했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정의, 영혼의 건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은, 정의가 결국 이득이 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 하느냐, 하면 445 a 보시면, 311쪽에 좀 위부터 보지요. 444 e입니다. “그리고 보면 훌륭한 일종의 영혼의 정신적인 건강이고 아름다움이요, 좋은 상태인 반면에, 나쁨은 일종의 질병이다.” 라고 얘기하고서, 이때 여기서 훌륭함이라는 것의 정의를 비롯한 다른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435 a 에 가서 “문제가 우스워진 듯하다. 정의가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가 우스운 것이 된 것 같다. 육신의 본바탕이 망가진 경우에 부와 권력을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데, 영혼의 건강이 무너진 마당에 다른 종류의 것도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혼의 각 부분이 제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영혼의 건강이다. 그리고 영혼의 건강이란 것은 좋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가 이득이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있는 대답

이란 말이에요. 정의라는 것은 영혼의 각 부분이 제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은 당연히 좋은 것, 그 자체로 추구할만한 것, 그러니까 정의가 결국은 이득이 된다.

▲ 소크라테스의 정의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대답인데, 그 대답과 관련해서 만약에 영혼의 건강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정의와 상관이 없다면 결국에는 대답을 따로 한 것이 아니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정의로울 만한 이유가 있느냐,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애초의 문제란 말이에요, 글라우콘이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지요. 그리고 글라우콘이나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은 정의로운 것은 별로 도움 되는 것이 아니다, 부정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 되는 것이라고 얘기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정의로운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왜냐면 정의가 영혼의 건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대답이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얘기 하는 것은 도둑질 하지 않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둑질 하지 않는 것 하고 영혼의 각 부분이 제 할 일을 하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더 나아가서 일상적인 의미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의 이득을 우리가 챙겨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물건 뺏지 않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의 정의는, 물론 여기에 영혼의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혼의 건강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타인의 이익이라는 계기를 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이득만 이야기하고 영혼의 건강만 이야기 한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예컨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요. 내가 뭘 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한 달쯤 지나서 뭘 해주기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 달쯤 지나서 뭘 해줄 테니까 지금 네가 나한테 뭘 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고 한 달이 지났어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난 도움을 받았고 한 달 뒤에 내가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해줘야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내가 그 행동을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것이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이득과는 도대체 상관이 없다, 그런데 플라톤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해주는 것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내 영혼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한 달 후에 어떤 행동을 해 주는 것이 내 자신의 이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고 얘기 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얘기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냥 이해타산에 따른 행동인 것이지. 그 이해타산이 물론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해타산과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해타산이 분명히 좀 실질적인 내용은 좀 다르게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빠져 있는 것에서는 도덕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어떤 정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건강이다 이런 얘기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크라

테스가 한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정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타산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차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트라시마코스는 배격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둘 다 이해타산만 생각을 한 것인데, 일상적인 의미에서 정의로운 행동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고, 이해타산을 가만히 따져 봤을 때 일상적인 의미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다르게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지, 둘 사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는 어떤 행동이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진정한 궁극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도 아니지 않냐, 하는 반론이 제기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야기 하자면, 부정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만히 가봐라, 결국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밖에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자면 글라우콘이나 아데이만토스 같은 사람이 제기했던 문제와 그렇게, 그러니까 아데이만토스 같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정의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 칭찬하는 방식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칭찬의 방식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데이만토스가 보통 사람들이 정의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정의의 결과만 가지고 칭송을 하지, 정확히 아데이만토스의 말은 아닙니다만, 약간 말을 좀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지금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득이다. 이런저런 결과를 다 따져볼 때 그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할 때, 사실은 지금 당장에는 부정의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봐, 나중에 가면 이런 저런 손해들이 생겨. 그러니까 일단 정의로운 행동을 해라, 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의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데이만토스가 이야기 했던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 한 것은 정의 자체가 이득이 된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냐.

▲ 정의 - 영혼의 질서와 조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것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의 이득과 타인의 이득이라는 것을 완전히 떼어 놓고서 이야기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어떤 방식의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이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정의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 그 자체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함이 그 이후에 다른 결과를 나아서가 아니라... 그러니

까 아까 약속을 지키는 경우에 내가 한 달 전에 재가 나한테 어떤 좋은 행동을 해 줬기 때문에 그 행동 해주면 내가 한 달 뒤에 너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주기로 했을 때, 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 이 약속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도 아, 재가 약속을 과거에 지켰으니 까, 앞으로도 어떤 약속을 지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킨, 타인에 대한 배려의 행위를 그 자체로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이득과 연결이 되냐, 그것은 이해타산으로 따지지 않는 행위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즉 자기 자신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는 것 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인의 이득을 고려한, 배려해 주는 행위 자체는 영혼의 조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행위 자체가 내 영혼의 배려를 만들어주는 행위가 아니가,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영혼의 어떤 질서 있는 영혼, 그 행위로부터 꼭 나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을 그 자체로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질서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타인의 배려, 그러니까 타인의 이득을 배려해 주는 것, 그 이야기는 나의 영혼에 있어서 어떤 욕구적인 부분이, 욕구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먹을 것 먹고 싶어 하고, 그 자체로서 재물을, 442 a 보시면, 305쪽입니다. “그 성향 상 도무지 재물에 대해서 만족을 모르는 부분” 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득을 그 자체로서 고려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구적인 부분이 만족을 몰라서 자꾸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타인의 이득을 그 자체로서 고려해 주는 것이 바로 욕구적인 부분에 어떤 적절한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욕구를 재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것 챙기지 않고 타인의 이득을 그 자체로서 고려해 주는 것, 바로 그런 행위가 욕구적인 부분에 어떤 경향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욕구적인 부분이 제멋대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런 막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바로 영혼의 조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득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 어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을 그 자체로서 정의로운 행동, 타인에 대한 고려를 하고 바로 그러한 고려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만, 그 행동이 나의 욕구적인 부분이 제멋대로 자라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야지만 영혼이 질서 있는 영혼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308쪽 같은 곳에서 443 e 있는 곳부터 보시면, “혹시 이들 사이의 것들으로써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게라도 되면, 이들마저도 모두 함께 결합시켜서는, 여럿인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인 절제 있고 조화된 사람으로 되네. 이렇게 되어서야 그는 행동을 하네.” 그러고요. “그는 무슨 일을, 가령 재물의 획득이나 몸의 보살핌 또는 정치나 개인적인 계약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성격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도와서 이루게 하는 것을 정의롭고 아름다운 행위라고 하고, 그런 것을 관찰하는 지식을 지혜라고 하고, 그런 상태를 무너트리는 것을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본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두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성격 상태를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 시

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왜 생기냐. 그런 욕구는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가 아니라, 어떤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다,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를 채워주도록 내버려두게 되면, 그 욕구적인 부분은 자꾸 더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욕구적인 부분은 만족을 모르게 때문에 자꾸 더 갖고 싶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더 갖고 싶은 것을 한번이라도 더 갖게 내버려두게 되면 그것이 그만큼 더 욕구적인 부분의 힘이 더 세지고, 그러면 이성적인 부분이 욕구적인 부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혼의 질서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0쪽에 넘어가서요, 444 c, 444 d 넘어가는 곳을 보시면, “올바른 것들, 정의로운 것들을 행하는 것은 정의를 생기게 하고. 부정의한 것들을 행하는 것은 부정의함, 올바르지 못함을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때 올바른 것들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바로 일상적인 의미에서 정의로운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정의와 소크라테스가 define한, 정의내린 정의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지만,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플라톤적 의미, 소크라테스적 의미에서의 정의가 영혼에서 생겨나게 되고,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의미에서의 부정의가 영혼 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자체로서는 타인의 이득을 고려하는 행동이지만, 타인의 이득을 고려하는 행위, 그것을 바로 그 자체로서 행함으로써만이 나의 영혼에 질서가, 조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대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모든 질문이 대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동안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읽어보실 부분은, 5권부터 7권까지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사실 5권부터 7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5권부터 7권이 『국가』편의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8권, 9권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8권, 9권에서 부정의한 사람들과 부정의한 정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보고, 어떤 부분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부정의한 사람보다 더 낫고 행복한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소크라테스가 하게 되겠습니다.